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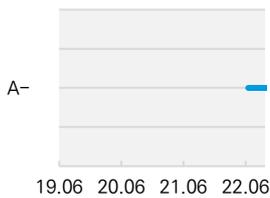
평가일 2022.06.16

평가담당자

여윤기 수석애널리스트
☎02-787-2364
yunki.yeoh@kisrating.com

위지원 실장
☎02-787-2279
geewon.wee@kisrating.com

등급변동추이(Issuer Rating)



유효 등급

Issuer Rating A-/안정적
기업어음 A2-

평가 개요

평가대상	종류	현재등급	직전등급	비고
Issuer Rating	본	A-/안정적	-	원화 및 외화
기업어음	본	A2-	-	-

주요 재무지표

구 분	K-IFRS(연결)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03
총자산(억원)					2,006
총차입금(억원)					-
자기자본(억원)					1,994
영업이익(억원)					-3
당기순이익(억원)					-3
ROA(%)					-2.4
ROE(%)					-2.4
총자산/자기자본(배)					1.0

주1) 2022년 1월 설립 법인으로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자료: 동사 제시

2) 2022년 신설법인으로 2022년 ROA, ROE 연환산

평가 의견

한국신용평가(이하 '당사')는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이하 '동사')의 Issuer Rating(원화 및 외화 기준)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로 부여한다.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신설법인으로 열위한 사업기반
- 우수한 재무안정성
- 우리금융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Outlook – 안정적

동사의 투자여력, 자본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동사의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업체 개요

동사는 2022년 1월 설립된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회사로 우리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등급논리

열위한 사업기반 및 이익창출력, 우수한 자본적정성 등을 고려하였다. 동사 신용등급에는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2 notch uplift 반영되었다.

사업초기로 사업기반 및 이익창출력이 열위하다.

2022년 설립된 우리금융지주 계열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회사로 보유 부실채권 투자자산 규모, 이익창출력 등이 경쟁업체 대비 열위하다. 사업기반 확대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확보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한다. 2022년 1분기 부실채권 투자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32.0%로 2위를 차지하며 적극적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재무안정성이 우수하다.

설립 자본금이 2천억원으로 경쟁 부실채권 투자회사에 비해 초기 출자금이 큰 편이다. 사업초기 단계로 외부자금 조달 잔액은 없어 자본적정성이 우수하다.

우리금융그룹의 영업적, 재무적 지원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한 우리금융그룹의 동사에 대한 영업적, 재무적 지원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우리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은 동사의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원능력과 지원의지를 고려하였다.

사업 및 재무전망

은행권 대출원금 상환이 유예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국내은행 부실채권 매각규모는 2021년 대비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지원 프로그램 종료와 이로 인한 은행권 부실채권 잔액 및 매각물량 등이 NPL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신규 부실채권 전문투자사 설립 등으로 입찰경쟁은 과거 대비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동사의 투자여력, 경영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에 투자하며 사업기반을 확장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채권 투자 확대로 차입금 의존도 상승,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지표는 우수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분석한다.

Key Monitoring Indicators

부실채권 투자부문 시장지위,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다.

구분	등급 변동 요인
등급 상향 가능성 증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투자실적을 통해 사업기반이 개선되고, •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우수하게 유지되는 경우
등급 하향 가능성 증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L 투자시장에서 열위한 시장지위가 유지되거나 • 투자자산 회수율 하락 등으로 미흡한 이익창출력이 지속되는 경우

주) 당사가 제시하고 있는 Key Monitoring Indicators는 평가대상 회사의 신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실제 신용등급 결정 시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량 및 정성 변수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정된 KMI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이 반드시 조정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바랍니다.

Key Rating Considerations

2022년 1월 출범, 사업초기로 이익창출력 등 열위

동사는 2022년 1월 설립된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회사로 우리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 자본금이 2천억원으로 경쟁 부실채권 투자회사에 비해 초기 출자금이 큰 편으로 자본력을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적극적인 부실채권 투자가 이루어졌다. 1,093억원을 투자하며 2022년 1분기 시장점유율 32.0%로 연합자산관리에 이어 업계 2위를 차지했다.

부실채권 매입규모 - 동사 입찰, 경매 OPB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1	22.1Q
매입규모 ¹⁾					1,093
시장점유율(%) ²⁾					32.0

주1) 매입규모는 채권원금, 가지금금, 미수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OPB 기준(경쟁입찰, 개별수의계약 포함)

주2) 시장점유율은 채권원금, 가지금금 합산금액 기준(개별수의계약 제외)

자료: 동사 제시

2021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1.8조원이며, 연간 매각규모는 3~4조원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건전성지표 개선 등으로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0~2021년 매각규모 감소에는 원금상환유예 등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원금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경우 이연된 부실채권 매각이 집행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현 수준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 및 정리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부실채권 계	28.5	24.6	21.1	18.2	15.3	13.9	11.8
매각	5.2	4.7	4.2	4.2	4.1	3.7	2.9

주) 2020, 2021년 매각금액은 업계 제시 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업계 제시

2022년 1분기 부실채권 투자점유율은 높은 편이나, 사업초기 단계로 누적된 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경쟁업체와 비교 시 작은 편이다. 2022년 3월 말 기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대출채권 등) 잔액은 666억원으로 사업규모가 주요 경쟁업체(연합자산관리, 대신에프앤아이, 하나에프앤아이 등)에 비해 열위하다.

자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03
현금 및 현금성자산					961
유가증권					-
대출채권					666
기타자산					379
총자산					2,006

주) K-IFRS(연결) 기준

자료: 동사 제시

한편, 2022년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2.1Q
영업이익					-3
순이자이익					3
순수수료이익					-1
배당수익					-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
기타영업손익					-5
영업외손익					-
세전이익					-3
당기순이익					-3

주) K-IFRS(연결) 기준

자료: 동사 제시

자본적정성 우수

2022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1,994억 원이며, 차입금 잔액은 없다. 향후 부실채권 투자 확대 로 차입금 의존도 상승,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지표는 우수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분석한다.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억원, %, 배)

구분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03
총자산					2,006
현금성자산					961
투자자산					666
총차입금					-
기업어음·차입부채					-
사채					-
자기자본					1,994
자기자본/총자산(%)					99.4
부채비율(%)					0.6
총차입금/자기자본(배)					0.0

주1) 투자자산=유가증권+대출채권

자료: 동사 제시, 당사 재구성

2) K-IFRS(연결) 기준

유동성 분석

2022년 3월 말 차입금 잔액은 없다.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반영

우리금융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였다. 지원가능성은 우리금융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원능력과 지원의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지원여력 측면에서는 신용도 및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였으며, 지원의지에서는 전략적 중요성, 투자기대효과, Reputation Risk 등을 반영하였다.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판단

구분		분석 결과
지원능력	신용도 차이 규모의 차이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지주(AAA)는 우수한 시장지위 및 사업경쟁력을 확보한 우리은행(AAA) 등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이다. 신용도, 자본 등에서 동사와 격차가 상당하여 지원능력이 매우 높다.
지원의지	전략적 중요성 투자기대효과 Reputation Risk	금융업 특성 상 Reputation의 중요성, 자회사 건전경영 책임, 금융그룹 사업구조 내 동사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동사에 대한 지원의지는 높다.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2 Notch Uplift 적용

Mapping Grid 적용 결과

기타금융업 Mapping Grid	AAA	AA	A	BBB	BB	B
Factor 1. 산업위험 및 영업기반 (50%)				0		
Factor 2. 수익성 (15%)						0
Factor 3.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25%)			0			
Factor 4. 유동성 (10%)				0		
Mapping Grid 적용 결과				◎		

- 주1) 2022.01 설립 법인으로 가결산 분기 재무제표 사용
- 2) 수익성 지표 연환산

주) 상기 Mapping Grid는 업종별 평가방법론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최종 신용등급 도출과정에는 여기에 제시된 것 외의 여타 사업 및 재무적 요소, 미래 실적 전망, 계열의 지원가능성, 각 발행자와 당해 채무의 특수성 등 다양한 평가요소가 추가적으로 감안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Mapping Grid 적용 결과와 실제 신용등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산업위험 및 영업기반은 규제 및 업종 환경, 업종 내 시장지위, 영업구조의 안정성 등을 반영한다.

수익성은 ROA 및 실적변동성 등을 반영한다.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은 자산부실위험, 단순자기자본비율, 리스크 관리 및 통제수준 등을 반영한다.

유동성은 유동성관리 등을 반영한다.

2022년 1월 신설법인으로 가결산 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며, 수익성지표를 연환산하였다.

본 평가에는 **현행 KIS 신용평가 일반론, 기타금융업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평가 방법론은 "www.kisrating.com/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든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확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장,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

본건 신용평가의 개시일은 2022.05.03 이고, 계약체결일은 2022.05.03 이며, 평가종료일은 2022.06.17 입니다.

당사가 최근 2년간 신용평가 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용역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각각 0건, 0백만원(정기평가 포함) 입니다. 평가일 현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신용평가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업무는 없습니다.

당사가 최근 2년간 신용평가 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비평가용역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각각 0건, 0백만원(정기평가 포함) 입니다. 평가일 현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신용평가 요청인의 비평가용역은 없습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다음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 제44조 등에 따라 제공된 내용이며, 평가의견의 일부입니다.

- 본건 평가시 당사가 이용한 중요자료는 최근 재무자료, 최근 금융거래 현황,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입니다.

회사채 신용등급별 정의 및 부도율

(단위 : %)

등급	정의	연간부도율		평균누적부도율	
		규정	광의	규정	광의
A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0.00	0.00	0.00	0.00
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0.00	0.00	0.00	0.00
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0.00	0.00	0.31	1.44
BBB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0.00	0.00	1.73	6.34
BB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2.78	2.78	9.56	11.80
B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6.25	6.25	10.57	13.60
CCC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0.00	0.00	18.41	20.52
CC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0.00	0.00	0.00	--
C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	--	14.67	18.90
D	상환불능상태이다.				

주1) 상급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주2) 자산유동화평가의 경우 "(sf)"를 상급 신용등급에 추가하여 표시함. 주3) 제3자 신용평가의 경우 "Tp"를 상급 신용등급 앞에 추가하여 표시함. 주4)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정의에 따라 산정한 부도율임. 주5) 광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제1항 제9호의 "광의의 부도" 정의에 따라 산정한 부도율임. 여기에서 "광의의 부도"란 금융투자업 규정상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임. 주6) 연간부도율은 2021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21년을 기준으로 한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임.

기업어음 및 단기회사채 신용등급별 정의

등급	정의
A1	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A2	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3	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	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C	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D	상환불능상태이다.

주1) 상급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주2) 자산유동화평가의 경우 상급 신용등급 뒤에 "(sf)"를 추가하여 표시함. 주3) 제3자 신용평가의 경우 "Tp"를 상급 신용등급 앞에 추가하여 표시함.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신용등급별 정의

등급	정의
AAA	보험금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이다.
AA	보험금지급능력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	보험금지급능력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BBB	보험금지급능력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BB	보험금지급능력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B	보험금지급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CCC	보험금지급 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보험금지급능력이 의문시된다.
CC	보험금지급 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보험금지급능력이 희박하다.
C	보험금지급 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보험금지급능력이 없다.
D	보험금지급 불능상태이다.

주1) 상급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주2) 제3자 신용평가의 경우 "Tp"를 상급 신용등급 앞에 추가하여 표시함.

기업신용평가(Issuer Rating) 신용등급별 정의

등급	정의
AAA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AA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BBB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BB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B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CCC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CC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C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없다.
D	상환불능상태이다.

주1) 상급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주2) 자산유동화평가의 경우 상급 신용등급 뒤에 "(sf)"를 추가하여 표시함. 주3) 제3자 신용평가의 경우 "Tp"를 상급 신용등급 앞에 추가하여 표시함.

펀드신용평가 신용등급별 정의

등급	정의
AAA(f)	펀드 편입자산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최고 수준이다.
AA(f)	펀드 편입자산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상위수준이다.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f)	펀드 편입자산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중상위 수준이며, 상위등급(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BBB(f)	펀드 편입자산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비교적 높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BB(f)	펀드 편입자산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낮고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B(f)	펀드 편입자산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매우 낮고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CCC(f)	펀드 편입자산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매우 투기적이다.
CC(f)	펀드 편입자산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상위등급(CCC)보다 낮으며, 불확정한 수준이다.
C(f)	펀드 편입자산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상위등급(CC)보다 낮으며, 매우 불확정한 수준이다.

주1) 상급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주2) 제3자 신용평가의 경우 "Tp"를 상급 신용등급 앞에 추가하여 표시함. 주3) 채권형 펀드의 펀드신용평가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뒤에 "(f)" 대신 "(bf)"를 부가함. (예:AAA(bf))